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상 빈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어교육을 위한

전통미술작품 감상 활용 방안 연구

-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초급·중급·고급
과정 외국인 대상-

201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황 미 혜

한국어교육을 위한
전통미술작품 감상 활용 방안 연구
-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초급·중급·고급
과정 외국인 대상-

임상빈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황 미 혜

인 준 서

황 미 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1월

심사위원장 김 정 연 (인)

심 사 위 원 노 신 경 (인)

심 사 위 원 임 상 빈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다양한 전통미술 작품 이미지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한국어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교재 분석과 현직 한국어 교사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어교육에 있어 문화교육의 실제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한국어 교재의 바람직한 방향을 구상하여 제시한다. 또한 전통미술 작품들을 접하는 즐거움과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소통, 미술교육과의 융합을 목표로 한다.

미술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육의 고급단계나 그 단계마저 쉽게 접하기 힘든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조사한 결과 현재 전통미술 작품 제시는 전무후무한 상태이다.

본인은 한국어를 배우는 초기 단계부터 한국 미술을 노출시키는 수업이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여러 나라의 미술작품을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수업의 집중력과 학습자들 간의 이해 공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수·학습지도안의 제시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에 학습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여성이주민, 학문 목적의 대학생 등 지도하는 교사 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하였다. 인터뷰의 의견을 바탕으로 초·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전통미술 작품을 이미지 자료로 선정했다. 선정의 기준은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선조들의 생활상을 다룬 ‘풍속화’를 중심으로 하였다. 선정기준에 맞추어 ‘국어국립원’이 어휘와 문법 항목을 초·중·고급으로 나눈 목록을 참조하였으며 교사의 설명과 외국인 학습자의 이해가 가능한 전통미술 작품을 이미지 자료로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

한 작품들을 활용하여 어휘와 문법항목을 위한 교수 학습 지도안으로 제작했다. 초급 학습자들을 위한 [-었], 중급 학습자들을 위한 [V-(으)면서], 고급 학습자를 위한[-거니와]를 계획해 보았다.

한국문화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많아 전통미술 작품을 수업에서 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미술자료의 정보만 있다면 수업에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외국인 학습자들의 전통미술 작품에 대한 관심도와 인지도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 전통미술 작품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습지도안은 예시안으로써 본 연구를 포함한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해 한국어교육과 한국미술교육이 문화교육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전통미술 작품 활용 목적을 정리하면, 첫 번째, 한국어 언어교육에 효과적이다. 두 번째, 전통미술을 통해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혀 한국에 대한 적응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높인다. 세 번째, 수업의 흥미와 한국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네 번째, 심미적 자료 제시로 미술교육이 융합된 효과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포함한 한국어 교사들의 미술작품 활용을 위한 교육의 연구도 이어져 한국어 학습에 활기가 더해지길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II. 한국어 교육의 목적	7
1. 문화교육의 이해	8
1) 문화교육의 실태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2 - 문화편4과)	12
2) 문제점	18
2. 전통미술 작품 활용의 이해	20
1) 전통미술 작품 제시 실태	22
① 초급 (- 었)	23
② 중급 (- 면서)	24
③ 고급 (- 거니와)	25
2) 문제점	25
3) 개선방안	28
III 전통미술 작품 자료에 대한 요구조사 분석	33
1. 인터뷰	33
1) 심층면접의 연구절차	33
2) 인터뷰 대상자 소개	33

3) 자료 분석	34
4) 질문지 내용	34
2. 인터뷰 조사 결과	36
1) 성영희 선생님 (성동구청 외국인 근로자센터)	36
2) 전영분 선생님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37
3) 홍지미 선생님 (신한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38
4) 김희수 선생님 (한양대학교 한국어 동아리)	39
3. 인터뷰 조사 분석	40
1) 이미지자료의 사용여부 (질문지 4, 5.)	40
2) 전통미술 작품 자료 활용여부 (질문지 5.)	42
3) 자료 채택 시 주의사항과 문제점 (질문지 6.)	42
4) 교사들이 선호하는 전통미술 작품 (질문지 7.)	43
5) 교사들의 의견 (질문지 8.)	44
IV 전통미술 작품을 활용한 교수학습지도안 설계	45
1. 초급·중급·고급 단계별 전통미술 작품 제시안	45
1) 초급 [- 었]	45
① 필요성	47
② 활용방안	47
③ 기대효과	47
2) 중급 [- 면서]	47
① 필요성	49
② 활용방안	49
③ 기대효과	50
3) 고급 [- 거니와]	50

① 필요성.....	55
② 활용방안.....	55
③ 기대효과.....	55
2. 초급·중급·고급 단계의 공통점과 차이점.....	55
1) 공통점.....	56
2) 차이점.....	56
3) 시사점.....	57
 V 결 론.....	 58

참고문헌

부록

ABSTRACT(영문초록)

표 목차

<표 1> 「연세한국어」 초급 교재의 전통 문화 교육 내용 분석.....	14
<표 2> 「이화한국어」 초급 교재의 전통 문화 교육 내용 분석.....	15
<표 3>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초급 교재의 전통 문화 교육 내용 분석.....	15

그림 목차

<그림 1>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초급1 (목차).....	13-14
<그림 2>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초급2 (문화편4과).....	16-18
<그림 3>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초급 (언어편9과).....	23
<그림 4>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중급 (언어편24과).....	24
<그림 5>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고급 (언어편17과).....	25
<그림 6> 한국어교사 인터뷰 질문지.....	35-36
<그림 7> 전통미술 작품을 활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엿).....	45-46
<그림 8> 전통미술 작품을 활용한 교수학습 지도안(-면서).....	47-49
<그림 9> 전통미술 작품을 활용한 교수학습 지도안(-거니와).....	50-5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해 문화교육이 융합된 지침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통미술 작품 자료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지향한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움에 있어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알고 공감해야 한다는 것은 언어가 소통의 도구라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특히, 그 뿌리가 되는 전통 문화는 지금의 문화에 밀바탕인데 반해 외국인들에게는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것들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교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현재의 일상적인 이미지자료 제시 외에 한국 전통미술 작품 자료 제시가 반드시 필요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 전통미술 작품 자료 제시가 고급과정에서나 교재의 뒷부분에 한정되어 제공 되는 것이 아닌 어휘와 문법을 배우는 초급단계부터 시각이미지 자료로 활용되어 진다면 수업에 흥미와 즐거움을 더하고 미술교육과 융합된 수준 높은 언어교육이 될 것이다.

문화와 언어를 통합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도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고 학습목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 드라마와 K-Pop문화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0년 이후 5만을 넘었고 해마다 늘고 있는 이민자와 취업 외국인들이 크게 증가하여 이제 한국인구의 2%에 해당하는 외국인 100만 명 이상의 시대가 펼쳐졌다.¹⁾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자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에 대한 요구도 확대되고 학습목적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영상 문화로서 영화와

1) 나정선,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 방법」, 단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년, p51

문학, 예술에 대한 문화적 관심도 증가 추세에 있다.²⁾ 앞으로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문화교육으로서 전통미술 작품을 이미지 자료로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언어소통과 더불어 한국문화로서 미술과 언어의 통합교육을 지향한다. 그 나라의 문화가 잘 표현되어 있는 미술작품을 언어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그 안에 내재된 문화를 가르치는 언어와 문화 통합교육에 대해 연구하려 한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문화를 내포하는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문화 간에 인적 교류의 확대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이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나 외국에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역사적 전통성이 담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는 사회교육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Bonvillain(2000, 재인용)은 “한 언어의 문법과 어휘를 완벽하게 터득할 수는 있지만 문화를 모르고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즉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명확히 이해하고자 할 때는 그 언어의 문화적 규범을 공유하지 못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 오늘날의 의사소통은 문화간의 소통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세계화 시대의 의사소통은 문화간의 소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화간의 의사소통은 한 문화에서 만들어낸 의미 내용을 다른 문화에서 해석할 때 일어난다.”(Porter & Samovar, 1994). 세계화 된 오늘날의 의사소통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2) 황인교, 「한국어 교육론2」, 『문학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문화사, 2003년, p281

Brown(2000, 재인용)은 “언어와 문화는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언어를 가르칠 때에는 항상 문화적 관습, 가치, 사고방식, 감성양식, 행동양식을 가르치게 된다며 언어와 문화의 상호연관성에 초점을 맞췄다. 즉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언어 속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녹아 있으므로 상호 연관된 언어와 문화를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김정숙(1996)은 “학습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문화적 숙달도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 수업에서 문화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국 문화 교육의 방향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심민아(1998, 재인용)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수업에서 행해져야 할 한국 문화 교육의 방향을 제안한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보다 다양한 영역의 한국 문화 내용을 소재로 다루고, 단계별 문화 목록을 만들어 이를 교재에 반영해야 하며, 교재에 그림과 사진을 많이 실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교육은 언어와 문화가 통합된 수업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한국인들과 문화적 담론을 나누거나 예술을 주제로 한 대화에서 필요한 문화 예술적 문식성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문화의 특징이 드러나는 조선의 풍속화, 근·현대 미술작품을 시각적 자료로 선정하여 언어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의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접하게 하려는 언어, 미술문화 융합 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융합언어 교육은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예술작품들을 접하면서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여 문화, 예술적 문식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대의 분위기와 한국 특유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들을 언어교육 초급단계부터 접함으로써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일상생활을 편

건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 사회, 역사적 배경이 투영된 미술 작품들을 선정하여 학습자의 언어력 향상과 함께 문화적 갈등을 해소시켜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작품 속에 녹아있는 한국 사회와 문화를 접하게 되면 문화적 문식력이 향상되어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지적, 정서적, 사회·문화적 소통 능력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 감상의 시간을 통해 즐거움과 미적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며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나누는 언어, 문화 소통의 확장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어휘나 문법을 외우고 반복하는 훈련 외에 예술적 감동과 즐거움을 수반한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문학 교육이 주는 즐거움과 유사할 것이다. 수업 도입부의 전통미술 작품의 제시는 학습자가 한국어 수업의 기대와 한국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흥미를 유발하며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리라 생각한다.

세 번째, 인간이 가지는 미(美)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미술교육 수업으로의 확대를 의미한다.

몇 년 전부터 한국미술의 모노크롬회화가 유럽과 미국의 미술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인들의 관심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에도 있겠으나 작품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오랫동안 이어진 역사 속에서 전승되어온 정신과 생활상 등이 궁금할 것이다. 한반도 작은 나라, 한민족에 국한된 철학이나 생각이 아닌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미술작품을 통해 한국어를 교육하면서 이해해야 한다. 전통미술 작품이 수업에 활기를 주는 언어자원으로 쓰인다면 외국인들에게 한국고유의 정서와 삶과 예술을 소개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을 촉진하는 강한 동기가 되게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사들도 단순히 언어 교육만을 담당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한

국어를 국제적인 언어로 세계 속에 계속 존속시키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전통미술 작품을 시각자료화 하는 활용교육과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한국어를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안해야 한다. 교수·학습 지도안에는 문법수업에 충실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재미있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매체인 회화와 미술작품 사진을 활용하여 한국문화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활용하려는 시각매체는 단순한 보조 자료로서가 아니라 그 과의 학습목표인 문법수업과 더불어 전통미술 작품에 대한 느낌을 나누고 한국문화를 알아가는 문화교육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통미술 작품 자료는 초·중·고급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고 한국어 수업과정에서 부족한 문화수업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전통미술 작품을 활용하는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인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이나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자녀들과의 대화, 외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학습하며 한국문화를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도 지속적이고 흥미 있는 수업으로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전통미술 작품을 도입하여 문화교육에 도움을 주는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어 교사들의 언어와 문화교육에 대한 요구조사를 하고, 기존 교재를 분석하여 학습지도안의 방향을 마련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과 문화를 알기 위해 활용해야 할 전통미술 작품 자료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언어교육에 있어 문화교육이해에 따른 필요성과 문제점들을 현행 교재를 통해 살펴보고 전통미술 작품 활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연구해 나갈 것이다.

3장에서는 교사 인터뷰 질문지를 만들어 심층 면접하고 전통미술 작품 자료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를 분석하여 학습현장에서 전통미술 작품의 활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정리한다.

4장에서는 2장에서 다룬 현재 실행되는 교재의 문제점들과 3장에서 교사들이 요구하는 점을 보강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전통미술 작품 자료를 활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설계한다. 학습지도안은 초급·중급·고급 단계로 작성하고 새로운 지도안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기대효과와 초급·중급·고급 단계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살펴본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 요약과 연구를 통해 얻어진 의의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II 한국어 교육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전통미술 작품 자료 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이를 연구함에 있어 외국어로써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의 이해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본 논문의 핵심인 전통미술 작품 활용의 실태와 문제점, 나아가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한 사회의 언어에는 그 사회의 행동 및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이 나타나며, 그 사회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를 배운다는 것과 같은 말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문화의 소산물인 전통미술 작품의 활용은 한국어를 배우고 교육하는데 있어 더욱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민족 국가’가 코앞인 이때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현재 국내 일부 대학 내의 어학당에서 자체 제작하는 교재들과 국립국어원에서 제작한 몇몇 교재들을 필두로 하여 곳곳에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고 학습목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 어학연수, 유학, 비즈니스, 취업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 오는 외국인도 있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재원(2011,재인용)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9.2%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 중 외국 태생의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민족 국가’로 부르는데 예상대로라면 10년 후 한국은 다민족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³⁾

3) 이현정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있다」, 서울메이트, 2009

한국은 경제 성장과 IT 산업의 발달로 선진화를 촉진했고 이러한 급속한 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를 배우고 알기 위해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발전된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다.

박혜주(2005)는 「해외 한국학 문학 교재 연구」에서 “한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한국어 학교나 교실을 설치하여 한국어 교육에 관심과 열의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54개 미국 대학에 한국어 강 좌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세계화의 흐름과 전 지구적 영향으로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교육하기 위한 교육방법의 연구는 계속되고 다양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을 위해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전통미술 자료의 활용 가치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문화교육의 이해

문화는 한 사회 내 구성원들의 사상, 신념, 태도, 가치관 등 무형의 정신적인 면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이 학습의 결과로 대대로 이어져 온 유형과 무형의 산물들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언어를 배우기 원하는 나라의 문화를 학습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언어는 곧 문화의 일부이면서 표현하는 도구로써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있어 기본이 되는 문화교육의 근간도 위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인류의 가

치적 소산으로서의 철학, 예술, 과학, 종교 등을 말한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9, p35)

장희경(2015, p11)은 “국립국어원에서 ‘문화(文化)’⁴⁾의 뜻을 찾아보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사회의 언어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를 알아야함을 저변에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 문화교육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교육은 올바른 언어 지식의 학습과 원활한 의사소통, 언어교육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수반하게 됨을 확신한다. 이처럼 문화는 그 사회구성원의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또한 문화의 일부이다. 따라서 언어교육에서 다루는 효과적인 문화교육을 위해 지속성 있는 문화 이미지 전달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는 기본적으로 언어사용 맥락 및 함의, 언어 사용과 관련된 가치,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언어 소통 능력 면에서 능숙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의 힘은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가 분명히 작용한다.

4) 장희경, 「전통 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재 구성 방안 연구」, 2015년, 12쪽, (재인용), ‘문화(culture)’는 1871년 Tylor에 의해 처음 정의 되었다. Tylor는 ‘문화는 인간의 공동사회가 이룩하여 그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의 양식 및 표현 체제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즉, ‘지식, 신념, 신앙, 법률, 예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람이 획득한 모든 능력이나 습관의 복합적 총체’라고 본 것이다. 문화(文化)란 ‘경작하다’란 뜻을 가진 ‘culture’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다. 즉 문화란 자연(natur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닌 사람에 의해 창조된 인위적인 모든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며 생산해낸 모든 생활양식과 활동, 그 생산물들을 문화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사고방식이나 이념, 사상, 가치관도 문화 생활을 통해 누적되고 발전되어 만들어진 문화라 할 것이다.

신남미(2014, p8 재인용)는 “외국어 교육의 현장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의 다섯가지 목표인 5C는 의사전달(Communication), 문화터득(Cultures), 다른 학과목과의 연계(Connection), 비교(Comparisons), 다문화 사회에의 참여(Communities) 이다. 이중 문화터득은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터득하는 것으로, 외국의 문화행동 (언어적 행위와 비언어적 행위)와 행동문화에 내재하는 관념적 문화(전통적 사고방식, 태도, 믿음, 가치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유형 · 무형의 문화적 소산품 (그림, 문학작품, 이야기, 춤, 교육제도 등)과 소산품에 내재하는 관념적 문화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라 하겠다.” (손호민, 1999, p113)

김중섭(2010, p60, 재인용)은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는 언어적 목적에 초점을 두어야하며, 문화적 내용이 한국어 교육의 내용과 과정 안에 통합되어 유기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즉 문화교육만을 위한 문화교육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과정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을 말 또는 글로 전달하는 수단이 되고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습득하는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라고 보았다.

Brown,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Jersey, Prentice Hall, 1980년. 문화란 ‘어느 특정시기에 특정집단의 사람들을 특정 짓게 해주는 생각, 관습, 기술, 예술, 도구 등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포함한 존재양식 또는 생활양식’ 이라고 하였다.

박영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림출판사, 2006년. 문화란 인간만이 가진 것으로서 사물에 대한 판단과 해석, 상상력, 창의력을 비롯한 모든 정신적 능력과 가치기준, 정서적 반응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가치기준에 따라 창조된 모든 행위와 사물의 총체를 말한다고 하였다. 즉 문화란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 및 사람에 의해 생성된 총칭인 것이다.

결국,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는 것이다. 문화를 배재한 언어교육은 있을 수 없고 또한 언어를 배재한 문화교육도 있을 수 없다. 특히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육에서 문화와 언어는 서로 함께 교육되어야 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 안에서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희경(2015, p13, 재인용)은 “Seely(1984)와 Rivers(1981)는 문화교육에 대하여 ‘타문화 사람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문화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다른 언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언어 그 자체만을 학습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언어의 문화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김정숙(1997, 재인용)은 “언어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목표어를 사용해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언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언어적 기능 수행이라고 본다면 언어와 문화는 통합하여 교육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원만한 언어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적 숙달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교육은 언어교육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희경, 「전통문화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재 구성 방안 연구」, 2015, p13)

조항록(2001)은 “문화적 능력이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학습과정에서 흥미와 동기를 강화한다는 최근 외국어 교수 이론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한국어를 통한 한국문화의 세계적 보급은 국제화 시대에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역할을 함으로서 국제사회에도 기여한다.”고 하였다.

박영순(2006)은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항목화 하였다. i 언어 이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ii 언어 교육의 정확성을 위하여, iii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하여, iv 올바른 번역과 통역을 위하여, v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vi 목표언어 사회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습득하여 한국사회에 맞는 올바르게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를 잘 알고 있어야 원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문화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어교육과 함께 문화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1) 문화교육의 실태

언어교육에 있어 문화교육의 실태는 학습하는 교재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화교육을 한국어교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화교육이 교재의 뒷부분에 편중되어 있다.

교재의 전반부에서 언어편 20과는 생활문화영역이 포함된 상황을 본문으로 하여 문법과 어휘를 배우고 후반부에서는 문화편 5과로 나뉘어 있다. 문화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급1에서는 1.인사예절, 1.생일문화, 3.교통문화, 4.음식문화, 5.태극기와 애국가를 실었으며 초급2에서는 1.한국의 지리, 2.쇼핑문화, 3.건강, 4.의생활, 5.집안일을 실었다. <그림 1> 결혼 여성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1 목차 참조.

결혼 여성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에서도 초급과 같은 언어편 20과와 후반부에 문화편 5과로 나뉘어 있으며 중급3에서는 1.주택, 2.태교와 출산, 3.공공기관, 4.한국인, 5.교육을 실었으며 중급4에서는 1.명절, 2.관혼상제, 3.직장생활, 4.학교생활, 5.세계 속의 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 여성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고급5, 6에서는 분리된 문화편 5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림 1> 결혼 여성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1 목차 참고.

<그림 1> 결혼 여성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1 목차

목 차

언 어 편

1과	안녕하세요?	3
2과	저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11
3과	가방 안에 있습니다	19
4과	남편은 무엇을 해요?	27
5과	이분은 누구세요?	37
6과	남편 생일이예요	45
7과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요	55
8과	배추는 얼마예요?	65
9과	공원에 가서 산책했어요	75
10과	김치찌개는 좀 맵워요	85
11과	주말에 운동회에 갈 거예요	95
12과	문화센터에 어떻게 가야 해요?	105
13과	여보세요, 김기호 씨 덕이지요?	115
14과	이제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125
15과	저는 자장면으로 할게요	135
16과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요	145
17과	영화가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155
18과	빨간색 스웨터를 사고 싶어요	165
19과	필리핀에 소포를 보내려고 해요	175
20과	과일 좀 드시면서 보세요	185

문 화 편

인사 예절	197
생일 문화	203
교통 문화	209
음식 문화	215
태극기와 애국가	221

부 록

어휘 활동지	229
문법 활동지	253

두 번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초급교재에서 전통문화 교육내용을 분석해보면 생활문화교육을 위주로 한다. 「연세한국어」, 「이화한국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의 전통 문화 교육 내용 분석 참조

<표 1> 「연세한국어」 초급 교재의 전통 문화 교육 내용 분석(장희경, 2014, p33)

구분	항목					계
	정신문화	언어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사회문화	
빈도수	4	4	3	126	7	144
비율(%)	2.78	2.78	2.08	87.5	4.86	100

<표 2> 「이화한국어」 초급 교재의 전통 문화 교육 내용 분석(장희경, 2014, p35)

구분	항목					계
	정신문화	언어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사회문화	
빈도수	52	22	22	148	16	260
비율(%)	20	8.46	8.46	56.93	6.15	100

<표 3>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의 전통 문화 교육 내용 분석(장희경, 2014, p37)

구분	항목					계
	정신문화	언어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사회문화	
빈도수	39	75	7	271	8	400
비율(%)	9.75	18.75	1.75	67.75	2.00	100

세 번째, 현대의 사진자료와 그림 자료를 주로 사용한다. 결혼여성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문화편 4과 의생활에서 이미지자료들은 모두 현대에 그려지거나 찍은 사진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옛 시대에 작품이 없으면 대체할 수 있겠으나 옛 물건이나 한복 등을 그린 옛 회화 작품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당시의 작가가 그린 작품을 교재에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면 더욱 전달력 있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아갈 것이다. <그림 2>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초급2 (문화편 4과) 참고.

<그림 2>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초급2 (문화편 4과)

2 교시

알아봅시다 1

한국의 전통의상, 한복

도입

- ① 교사는 학습자 모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본문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읽게 한다.
 - ② 모국어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소재를 말해 보도록 한다.
 - ③ 소재를 잘못 이해한 학생에게는 정확한 소재를 알려 준다.
- ☞ 학생들이 모국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읽을 수 있도록 교사는 기다려 준다.





어휘 및 표현

① 다음의 학습 어휘 목록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웃치림, 평소, 상대방, 등산복, 간편하다, 신부, 신랑, 하객, 상징하다, 상주, 문상객

다음의 학습 표현 목록을 제시한다.

때와 장소에 맞게, 어디 가세요? 반면에, 상을 당하다, -의 성격에 따라

- ② 이 어휘들 중 의미를 아는 것이 있으면 다른 학생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보도록 학생들에게 지시한다.
- ③ 학생들이 설명한 의미가 잘못 되었을 때 교사가 수정하여 준다. 학급 전원이 모르는 경우, 교사가 학생들에게 의미를 설명한다.
- ④ 이 어휘들을 바르게 발음하게 연습시킨다. 먼저 교사의 발화를 따라하도록 한다.

4 교시

여러분 고향은 어때요?

문화소개

- ① 학생들에게 자신의 고향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명절에 입는 웃치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게 한다. 한국의 웃치림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 ② 학생들 고향의 전통의상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입는 방법, 남녀 전통의상의 차이 등을 말하도록 한다.

나라마다 달라요





6 교시

체험 활동

문화 학습 활동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를 택일해서 하거나 여건이 허락되면 둘 다 해도 된다.

- ① 첫 번째 문화 활동은 한복 입는 법을 담은 비디오를 시청하는 활동이다. 여자와 남자의 한복 입는 법을 촬영한 비디오 자료들을 편리하게 검색해서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 모두가 한복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다음 ②에 소개할 실제 체험 활동의 전단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 ② 두 번째 문화 활동은 실제 한복을 가져와 입어보는 활동이다. 여자의 경우 치마저고리를 입는 순서, 고름 매는 법, 버선 신는 법

2) 문제점

언어가 문화의 소산물이므로 언어교육이 문화교육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볼 때 언어교육에 있어 문화교육의 비중이나 방법, 적절한 교재와 교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 문화영역을 다루는 시점과 문화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교재는 물론 수업시간에 문화를 다루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 장희경(2015, p31-35)은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연세한국

어」와 「이화한국어」의 초급 교재를 보면 ‘문화’라는 파트를 별도로 두어 한 단원이 끝날 때 해당 단원과 관련된 내용의 문화를 섞어가는 겸 읽을거리로 마련해 두었다. 국립국어원이 기획하고 결혼 이주민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의 초급과 중급교재에서는 「연세한국어」와 「이화한국어」와 달리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아닌 언어 학습을 위한 모든 단원이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문화’라는 문화 학습을 위한 단원을 별도로 설정해 두었다.”고 하였다.

교재에서 문화 교육 영역이 별도로 자리한다는 것은 교사에 따라,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또는 교사의 판단이나 시간에 쫓기어 얼마든지 배제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문화와 언어의 상관관계나 언어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알고 배워야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표면적 언어 교육을 하는 것이다. 배우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로 현지인과 대화할 때 문화적 무지는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화의 영역이 고르지 않고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장희경(2015, p33-51)은 “문화영역을 정신문화, 언어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사회문화로 분류해 보고 분석해 본 결과 「연세한국어」에서는 생활문화 영역이 87.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사회, 정신, 언어, 예술 문화는 비교적 적은 비중이었다. 「이화한국어」의 초급 교재에서는 생활문화가 56.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세한국어」와 비교하면 나머지 항목의 빈도수가 고른 편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의 초급 교재는 생활문화가 67.75%로 가장 많았다. 다른 두 교재에 비해 호칭이나 높임말을 나타내는 언어문화가 두 번째로 높았으나 예술문화와 관련된 전통문화교육 내용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조사는 문화교육 내에서 조차 내용적인 면에서 편향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결혼이주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에서는 특수 목적 교재답게 생활문화와 언어문화 영역의 높은 비중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시행되는 「연세한국어」와 「이화한국어」의 초급 교재에서는 생활문화에만 편중되지 말고 정신문화, 언어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사회문화가 고르게 교육될 수 있도록 문화 영역 비중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문화가 단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문화영역이 서로 연관된 유기체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현대의 사진자료나 그림 자료만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전통미술 작품 자료가 주는 다각적 문화 이해의 장점을 포기하는 일일 것이다. 외국인에게 문화를 교육하는데 학습자에 따라 먼저 요구되는 문화영역을 우선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순서일 수 있다. 여기에 초급단계부터 모든 교재에서 지도하는 언어편에 해당하는 어휘와 문법수업에서 전통미술 작품 자료가 보충 된다면 미술작품이 주는 다각적인 문화영역의 전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참고로 제시한 학습지도안에서 김홍도의 풍속화 그림을 보여주면 그 안에는 정신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사회문화가 혼재되어 담겨 있으므로 부족한 교재 안의 문화교육항목을 보충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2. 전통미술 작품 활용의 이해

한국 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앞에서 언급 하였듯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현행 학습 교재에도 문화영역을 따로 다루어 교육하고 있다. 문화 수업에 있어 전통미술 작품의 활용은 학습자가 학습 하고자 하는 나라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복합적인 문화이미지로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해 전통미술 작품을 자료로 활용하면 가치관, 세시풍

속, 통과 의례, 종교를 아우르는 정신문화 영역과 무형과 유형의 예술문화, 의복, 음식, 주거 여가생활과 생활양식을 포함하는 생활문화영역, 역사와 인물을 살펴볼 수 있는 사회문화영역까지, 자연스러운 전통문화영역에 노출되어 한국과 한국어를 다각적으로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전통미술 회화 이미지 안에는 풍습, 옷, 생활용품 등 복합적인 전통문화영역이 들어있어 자연스럽게 한국을 이해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효과적인 이미지자료라고 할 수 있다.

김연희(2010, p74)는 “그림속의 이미지와 비언어적인 기호인 예술적인 기교, 즉 색채와 선의 아름다움, 개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어휘나 문맥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글과 어휘에서 깨닫지 못했던 정서를 그림에서 구체적 형상을 대하면서 학습자의 스키마가 형성되고 학습자의 언어로 연관 짓기 시작하고 글의 주제나 어휘의 뜻에 대한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각이미지는 하나의 체계로 한 순간에 인식되기 때문에 장기기억에 도움이 되며 목표어 문화권의 예술가가 제작한 회화작품은 그 나라의 문화가 배어 있어 문화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 이미지연상을 위해 어휘나 문장의 텍스트와 조화된 훌륭한 회화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의 삽화로 사용되는 간단한 스케치도 텍스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학습자들은 원숙한 한국예술가의 작품에서 한국문화예술의 참다운 멋을 느낄 수 있고 더 많은 형상(이미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김연희(2014)는 “한국미술사의 대표적인 화가의 훌륭한 작품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화를 체험하게 되는 일이고 회화 텍스트를 해석해 가는 과정에서 그림의 심미적 표현에 자극을 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주제를 상상하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어의 깊이와 한국화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체험하고 감동하는 시간을 갖고 진정한 텍

스트 감상을 즐기는 시간이 주어질 때 학습자의 관심과 동기가 높아지고 텍스트에 몰두하여 진정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아무 감동도 없이 문학사 가치를 주입하고 텍스트 분석을 강요한다면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한다.

옥현진(2008, p233, 재인용) “「다중모드 문식성」에서 ‘그림을 글의 이해나 회상의 보조 자료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글과 동등한 지위로 보고 그림이 글과 더불어 두 갈래로 이야기를 진행해 가기 때문에 언어적 어려움이 있는 조금 낮은 단계의 학습자도 그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고 하였다. 텍스트의 어휘와 구조를 모두 파악하지 못한 중·고급 단계의 학습자들도 미리 회화나 사진이라는 시각이미지를 보고 그 의미와 느낌을 언어로 표현해보는 훈련을 통해 텍스트가 나타내는 주제에 관한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림은 문자언어 발달이 다소 뒤처지는 학생의 수업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김연희, 「시와 수필을 활용한 초·중급 한국어연구」, 이화여자교육대학 2009)

전통미술 작품의 제시와 더불어 한국의 어휘들과 문법을 초급단계부터 접하고 작품에 대해 학습자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점차 자국 문화와의 다름에서 오는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줄고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학습효과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고급과정에서 다루는 한국문학 수업의 이해에 초석이 될 것이다.

1) 전통미술 자료 제시 실태

전통미술 작품이 효과적 이미지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행 교재에서 전통미술 작품의 자료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초급·중급과정 언어편에서의 제시는 전무후무 하다. 교사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자료가 선택되지 않는 한 기존교재와 이미지 자료, 교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실정이라 하겠다.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언어
 편 초급(-았), 중급 (-면서), 고급(-거니와) 참고.

<그림 3>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초급 9과 (문법 : -았)

문법
-았/었-

ㅏ, ㅑ → -았어요		ㅓ, ㅕ, ㅖ, ㅣ 외 → -었어요		하다 → 했어요	
가다	갔어요	먹다	먹었어요	쇼핑하다	쇼핑했어요
보다	봤어요	쉬다	쉬었어요	요리하다	요리했어요

ㅏ, ㅑ → -았습니다		ㅓ, ㅕ, ㅖ, ㅣ 외 → -었습니다		하다 → 했습니다	
가다	갔습니다	먹다	먹었습니다	쇼핑하다	쇼핑했습니다
보다	봤습니다	쉬다	쉬었습니다	요리하다	요리했습니다

1 보기 와 같이 쓰세요.



극장

국립국어원

THE NATIONAL KOREAN LANGUAGE CENTER

가: 토요일에 무엇을 했어요?
 나: 극장에서 영화를 봤어요.

[1]



커피숍

[2]



식당

[3]



공원

<p>가: 어제 무엇을 했어요? 나: _____</p>	<p>가: 지난주에 무엇을 했어요? 나: _____</p>	<p>가: 오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나: _____</p>
---	---	---

<그림 4>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중급 24과 (문법 : -면서)

한국어_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문법2 -(으)면서

-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다.
-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한다.
-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연습 1. [보기]처럼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고쳐 써 봅시다.

[보기] (노래하다, 춤추다) ⇒ 노래하면서 춤춘다.

(1) (거울 보다, 화장을 하다)
⇒ _____

(2) (전화를 하다, 메모를 하다)
⇒ _____

(3) (책을 읽는다, 생각을 하다)
⇒ _____

(4) (텔레비전을 보다, 밥을 먹다)
⇒ _____

(5) (노래를 부르다, 청소를 하다)
⇒ _____

(6) (음악을 듣다, 운동을 하다)
⇒ _____

(7) (소리를 내다, 글씨를 쓰다)
⇒ _____

... 152 ...

<그림 5>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고급 17과 (문법 : - 거니와)

문법

- 거니와

- 요즘은 몸도 아프거니와 입도 잘 안 된다.
- 그는 입도 열심히 했거니와 문도 좋았다.
- 효영 씨는 얼굴도 예쁘거니와 마음씨도 착하다.

▶ **이럴 때 이렇게!**

- 앞의 사실에 대해 뒤의 사실까지 있어서 더 이따하다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한다.
- 주로 '-도 - 거니와' 형태로 사용한다.

1. 알맞은 것을 골라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이 영화는 재미도 있거니와 감동적이기도 해서 좋았다.

1) 이 영화는 재미가 있다. •

2) 어떤 여백은 남피기 나왔다. •

3) 직장은 업무의 내용이 중요하다. •

4) 직업은 본인의 희망이 중요하다. •

① 감동적이다.

② 소질이 중요하다.

③ 근무 조건이 중요하다

④ 음식이 입에 맞지 않다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

가: 아이에게 주려고 간식을 만들었는데 평양에 신경을 쓰다 보니 맛이 없어요.
 나: 아이에게 좋은 건식을 평양도 꼭로워거니와 맛도 있어야 합니다.

1) 가: 요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나: _____

2) 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면세요? 보수가 나빠서 그랬어요?
 나: _____

3) 가: 좀 우울해 보여요, 날씨가 나빠서 그렇요?
 나: _____

4) 가: 어떤에 취직한 직장이 그렇게 좋다면세요?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요?
 나: _____

17 국제 사회 175

2) 문제점

전통미술 작품 자료제시를 언어교육과 함께하는 수업의 시점과 방법, 중

류의 문제점을 현행교재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통미술 자료수업의 시점을 어휘·문법이 시작되는 초급단계에서부터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점차 누적되는 기간과 횟수로 볼 때 더욱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언어편 수업에서 매 과마다 배우는 문법과 어휘수업의 도입부에 전통미술 작품을 활용하면 초급부터 이미지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누적되는 수업량에 따라 전통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횟수 또한 비례하게 되는 것이다. 언어를 교육하는데 있어 문화를 분리시키지 않고 언어를 배우는데 문화를 활용하고 한국문화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자연스러운 교육이 될 것이다. 현행 교재의 구성방식은 한국어를 어느 과정까지 습득하여야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편견에서 온 편집으로 보인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이미 성인 학습자들로서 타 문화에 대해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두 번째, 방법적인 부분에서 현행 교재에 뒷부분의 참고영역이나 독립된 위치의 배치보다는 수업시간마다 접하게 되는 문법수업의 도입단계에서 전통미술 작품을 자료로 활용한다면 수업에 흥미와 관심을 향상시키고 수업에 집중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교사의 역량이나 시간에 쫓기어 문화교육이 생략되거나 축소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과 어휘 교육에서 이미지자료를 학습자에게 보여주는 수업은 현행 교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 시각자료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이때에 전통미술 작품을 자료로 활용한다면 한국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를 배우려는 초급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동기와 수업시간의 집중력을 높여 줄 것이다. 어휘나 문법을 설명할 훌륭한 한국미술 자료가 있다면 활용해야함이 마땅한 이유이다. 또, 문화교육에서만 자료로 활용한다면 현행교재에서 한 과의 마지막 부분이나 부록처럼 교재의 뒤쪽에 배치된 문화편의 수업은 비율과 위치의 특성상 문화교육에 대해 소홀하기 쉬워 시간이 여유롭지 못한 수업이나 교사의 선택에 따라

배재되거나 축소되는 수업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앞서서도 다룬 문화교육의 실태이자 문제점으로 문화교육의 중요성은 인지하면서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분절된 교육 형태이다.

신남미(2014, p5 재인용) “강혜진(2009)에서는 ‘문화 관련 자료를 단독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보다 각 단원의 내용과 주제와 관련하여 단원 내에서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문화자료를 제공할 때 교사들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장희경(2014)에서는 한국어 초·중·고급 교재에 제시된 전통문화 교육내용의 대부분이 한 단원의 끝부분, 혹은 한 교재의 뒷부분에 ‘문화’ 영역으로 독립적으로 제시되어 언어학습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언어교육과 전통문화교육과의 연계성을 볼 때 동떨어진 교육방법이라 할 것이다.

세 번째, 이미지 자료의 종류 면에서 볼 때 기존 교재는 현대의 이미지 자료만으로 되어있어 전통미술 작품이 주는 정신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사회문화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다각적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⁵⁾

기존 교재를 살펴보면 문법이나 어휘를 나타내기 위한 일러스트 형태의 단순한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아이가 어휘를 배울 때는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기억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어휘의 단순한 그림카드나 사진이 필요하겠으나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은 성인들로서 하나의 이미지 보다는 미술작품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 어휘나 문법을 익히는 것이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전통미술 작품에는 한국의 정신, 예술, 생활, 사회문화를 통합적으로 담겨있어 외국인 학습자에게 주는 문화학습 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김홍도의 「서당」을 이미지자료로 활용하면 조선

5) <부록1>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중급 24과 참고

시대의 교육 형태인 사회상과 생활문화를 엿보게 되고 전통적인 한국의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정신문화와 그림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예술문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사용하여 한국인들과 소통하려는 외국인 성인 학습자에게 필요한 수업이라 하겠다.⁶⁾ 복합적인 문화교육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급자에게는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과 복잡해 보일 것이라는 우려는 불필요할 것이다.

3) 개선방안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문화적 · 역사적 · 예술적 관심에서 시작하여 한국을 더 잘 알고자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 이러한 한국문화를 알고자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 예술이 융합된 한국 전통미술 작품의 제시가 필요한 이유이다.

장희경(2014, p15 재인용)은 “Gadamer(1996)는 ‘전통이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역사성을 지닌 채 축적된 가치 및 신념체계 또는 세계관 속에 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전통의 개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조상들의 정신과 유물, 또는 각 시대가 변하는 동안 많은 것을 경험 하면서 그것들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임을 가르킨다.’고 말한다.” 현재의 한국의 현대문화도 옛 조상들의 전통 문화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뿌리가 되며 이는 한국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임희섭(1990)은 “전통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승되고 축적되어 온 모든 문화적 유형의 집합체를 의미하며, 문화와 전통을 같은 의미로 보

6) <부록2>김홍도, 「서당」

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를 배우는 초·중급 외국인들이 타 문화권에서 이해하기 힘든 어휘적인 부분들을 옛 그림이나 예술품을 통한 시각자료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으며 한국의 현대문화를 이해하는데도 그 뿌리인 전통미술 작품을 통해 학습초기부터 접함으로써 공감에 따른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미술 작품을 외국인 학습자들의 초·중급 한국어 학습에 시각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 번째, 한국어 언어교육에 효과적이다.

두 번째,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혀 한국에 대한 적응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높인다.

세 번째, 수업의 흥미와 한국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네 번째, 심미적 자료제시로 미술교육이 융합된 효과를 기대한다.

첫 번째, 한국어 언어교육에 효과적이다. 언어를 배우는데 있어 상황이 그려진 이미지자료 제시는 기존 교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어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다. 여기에 수업 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 전통미술을 참고한다면 한국에만 있는 새로운 어휘나 모국어에도 있는 어휘들을 연관하여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며 장기 기억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회화작품은 단편적인 이미지가 아니므로 어휘 외에 동사와 형용사, 연결어 등 문법적인 패턴들을 지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보여주고 **N-과** 표현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나비**와** 곤충이 있어요.’, ‘곤충**과** 가지가 있어요.’와 같이 어휘와 함께 문법표현을 익히는 훌륭한 자료로 활용성이 충분하다.⁷⁾

두 번째,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혀 한국에 대한 적응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7) <부록3>신사임당, 「초충도」

높인다. 시대의 분위기와 한국특유의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예술작품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의 사고와 생활방식을 알게 되어 일상생활의 다름에서 오는 편견을 줄이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현대의 삶은 과학과 경제의 발전, 교류의 편리함 등으로 여러 나라가 비슷해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의 역사와 문화는 제각기 다르므로 그 뿌리를 이해할 때 학습하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 사용에도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한국에 대한 적응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 작품 속에는 정신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사회문화를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융합되어 나타나 있으므로 다각적 문화 이해를 돕는다.

세 번째, 수업의 흥미와 한국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수업의 도입부에 필요한 일반적인 시각적 이미지 자료 외에 한국인의 특성이나 전통이 담긴 이미지자료를 함께 보게 된다면 전통미술의 고유의 특별함으로 인해 수업의 집중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전통미술 자료가 수업에 활기를 주는 언어자원으로 쓰인다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고유의 정서와 삶을 예술로 소개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 동시에 한국어 교육을 촉진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네 번째, 심미적 자료제시로 미술교육이 융합된 효과를 기대한다. 한국의 전통미술 자료 제시라 함은 한국의 미술품(회화, 도자기, 공예 등)을 한국어 수업시간에 학습자에게 노출시킴 으로서 어휘나 문법학습과 더불어 문화교육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회화, 도자기, 공예품 등을 접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미와 예술적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편적 언어교육을 넘어 인간이 가지는 미(美)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미술교육과 융합된 교육이라 하겠다. 미술교육의 필요성은 현행 교육

과정에서도 필수 항목이듯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교육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를 교육함에 있어 ‘한국의 미’를 소개하는 과정은 언어교육의 고급단계나 개별적 참여인 미술관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쉽고 자연스럽게 노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술교육의 효과는 학습자가 느끼는 타국어 학습의 어려운 점을 희석하고 윤희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시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 제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 전통미술 작품 제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개선되고 연구 되어야 할 점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수업의 도입부에서 그 과의 문법이나 상황에 맞는 전통미술 작품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재의 연구가 필요하다. 수업의 중심이 교재의 구성에 따라 진행되므로 교재 내의 이미지자료 보강과 해설이 중요하다. 특히 전통미술 작품에 대한 설명을 미술사적으로나 조형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가 대부분이므로 작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언어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시 안이 설명되어져야 한다.

두 번째, 한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움을 시작하는 초급과정부터 한국미술 이미지자료를 보여주면서 학습동기를 끌어 올리고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한다. 문화의 영역은 언어의 뒤편이 아니라 공존하는 관계에서 문화 안에 언어가 포함되고 형성되어 발전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문화교육을 포함하는 전통미술 작품의 소개는 초급과정 언어교육 속에 노출 될 때 한국을 더 잘 이해하고 학습의 의지가 지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올바른 한국 문화 전달을 위해 미술품의 지식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교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안에서 미술 감상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적어 교사들도 전통문화 수업이나 미술품을 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나 대학 내 한국어학과의 교과수업에서 교사의 전통미술 작품에 대한 미술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인 학생들이 궁금하고 교사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것이 ‘언어’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국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종합적인 문화영역이다.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한 교사의 미술교육 양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노력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전통미술 문화를 접하며 감상하는 미술교육으로의 확장을 내포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가지고 현직 교사들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전통미술 자료를 활용한 학습지도안을 구성하였다.

Ⅲ 전통미술 작품 자료에 대한 요구조사 분석

1. 인터뷰

1) 심층 면접의 연구절차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에서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사 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시간은 40분~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우선, 면접 대상인 한국어교사에게 이메일과 전화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참여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비밀보호 보장 등 연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편의를 위해 질문지를 만들어 미리 전달하고 교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개별 면접으로 질문지 외에 한국어교사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답변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개인적으로 힘들어 하는 답변은 강요하지 않았다.

2) 인터뷰 대상자 소개

- ① 성동구 구청 근로자센터에서 8년간 1주일에 1회 2시간 한국어를 지도하신 성영희 선생님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부터 초급과 중급과정까지 지도하였다.
- ② 일대일 방문수업형식으로 3년간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주2회 2시간씩 지도하시는 전영분 선생님은 결혼여성 이민자를 대상으로 기초부터 초급과 중급과정까지 지도하고 있다.
- ③ 신한대학교에서 3년째 주5일 4시간씩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홍지미 선생님은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초급에서 중급까지 지도하고

있다.

④ 그룹으로 한양대학교 중국인학생을 교육하는 김희수 선생님은 자유로운 주제와 교재로 중국인 대학생들의 학교수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다.

3) 자료분석

윤옥경(2016, 재인용)은 「외국인 교수를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요구 분석 연구」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인 ‘심리학자 기오기(Giorgi)의 절차에 따라 자료 수집을 하고 분석’ (Thompson,1997).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개인의 경험을 기초로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학문인 현상학에 바탕을 둔 심층면접의 일종이다.”

4) 질문지 내용

인터뷰 내용은 한국어교사의 경력과 교육장소, 교재종류, 교육 대상 외국인의 학습단계와 소속을 먼저 질문하였다. 이미지자료 수업에 대해서는 참고 여부와 수업 중 보여주는 시기, 종류, 형태를 질문하였다. 전통미술 작품 자료에 대해서는 제시여부와 언어편에 속하는 어휘 문법 시간에 활용할 때의 효율성을 묻고 학습자의 초급단계 부터 제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 이미지자료로 사용하고 싶은 전통미술 작품의 종류와 장르 등을 질문하고 교재나 교구로 사용 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지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그림 6> 한국어 교사 인터뷰 질문지

전통미술 작품 자료에 대한 한국어 교사 인터뷰

1. 한국어교사 경력?
2. 지도한 학생의 학습단계? (초급, 중급, 고급)
3. 학습 시 사용한 교재(책이름)와 교구?
4. 한국어 수업에서 이미지 자료를 참고하여 수업한 적이 있으십니까?
 - 4-1. 이미지 자료는 학생들에게 수업 중 어느 때에 보여주시나요?
 - 4-2. 이미지 자료는 어떤 형태로 제시 되나요?(교재, 기존교구, 교사가 필요에 따라 만든 교구 등)
 - 4-3. 이미지 자료의 종류? (사진, 그림, 회화등 미술작품, 미디어 등)
5. 전통미술 작품을 이미지자료로 활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有,無)
 - 5-1. 어휘와 문법수업시간에 전통미술 작품을 소개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5-2. 이미지 자료에서 전통미술 작품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3. 전통미술 작품을 자료로 활용하여 가르친다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 5-4. 앞으로 전통미술작품을 자료로 사용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작품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 5-5. 어느 장르의 작품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 5-6. 이미지 자료로 보여주고 싶은 한국 전통미술 작품 시대와 이유?

6. 초급부터 전통미술 작품 이미지자료 제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1. 초급부터 전통미술 작품을 이미지자료로 제시하는 수업이 있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어휘와 문법수업에서)
7. 전통미술 작품을 이미지자료로 사용한다면 특정 선호하는 작가나 작품이 있습니까?
8. 전통미술 작품 자료 수업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2. 인터뷰 조사 결과

1) 성영희 선생님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8년간 기초부터 초급, 중급까지 지도하였고 일주일에 1회 2시간씩 주2시간을 성동구청 근로자센터에서 수업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로 수업하였다.

이미지 자료수업은 교재에 실려 있는 이미지, 낱말카드의 뒷면에 그려진 일러스트 이미지와 사진을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교사가 만들어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통미술 작품을 이미지 자료로 활용한 경험은 없었으나, 전통미술 작품을 이미지 자료로 활용하여 사용한다면 말하기와 듣기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한국의 미적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학습자의 호기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본인들의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고유의 문화와 생활상을 설명할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교수시 어려운 점으로 교사는 예술적 가치와 작품설명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함을 말했다. 전통미술 작품의 종류는 한국의 사회상과 함께 발전한 예술품을 보여주어 한국의 옛 시대상황이 지금의 문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종류의 작품이 좋을 것으로 보았다. 전통미술 작품의 장르는

회화, 공예품, 신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의상’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미술품의 시대는 멀지 않아 지금과 연결될 수 있는 조선시대나 근대의 작품들을 선호하였다.

초급부터 전통미술 작품 자료 제시에 대한 의견으로는 ‘할 수 있다면 초급 학생들에게도 좋고 가능하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학습시간의 부족으로 교사나 학습자에게 부담일 수 있다’고 말하며 수업분량에 따라 도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2) 전영분 선생님 인터뷰

결혼 여성 이민자를 대상으로 3년간 기초부터 초급, 중급까지 지도하였고 일주일에 2회 2시간씩 주4시간을 일대일 방문수업으로 진행하며 「결혼여성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로 수업하였다.

이미지 자료수업은 전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사진자료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문화편에서 이미지자료는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아궁이나 부뚜막, 기와, 너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의 이미지를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전통미술 작품을 자료로 활용한 적이 없으나 사용한다면 어려운 어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의 미’에 관심이 많고 외모를 가꾸는 것도 좋아하여 생활과 관계된 미적 체험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한국미술의 선정기준은 생활과 밀접한 작품, 한국적인 것을 필요로 하였으며 어려운 점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적 어휘에는 큰 도움이 되며 문법을 설명할 때 교사가 충분히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였다. 자료를 사용할 기회가 있다면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미술품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한다. 결혼여성 이민자들은 귀화 취득시험에서 문화와 역사의 비중이 커

서 관심도 또한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역사와 관계된 작품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장르는 의상, 건축물, 꽃이나 동물이 그려진 회화작품도 한국을 설명하고 어휘를 배울 때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보여주고 싶은 미술품의 시대는 근대시대의 미술품으로 역사가 담긴 작품을 선호하였다. 초급부터 전통미술 작품을 보여주는 수업을 긍정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보고 가능하다면 어휘와 문법수업에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3) 홍지미 선생님 인터뷰

학문을 목적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입학 예정인 신한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3년간 초급, 중급 까지 지도하고 일주일에 5회 4시간씩 주 20시간을 「서울대 한국어」 교재로 수업하고 있다.

이미지자료 사용은 교재에 실린 이미지 외에 미디어 매체를 사용하거나 뚜렷하고 직접적인 이미지 사진을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시기는 어려운 어휘와 문법 설명 시 대화하고 있는 드라마 동영상을 편집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통미술 작품을 자료로써 초·중급 과정에서는 아직 사용해 본적이 없으나 중·고급 과정에서 문화 · 경제 · 사회를 다룰 때 효용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여주는 시점은 어휘와 문법의 제시단계 보다는 수업의 활용단계에서 보여준다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좋아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며 수업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생각했다. 작품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교사가 학생들 나라의 미술작품을 먼저 찾아보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미술작품을 찾아 학습 자료로 활용 한다면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향상시켜 수업이 즐겁고 교사가 진행하기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 전통미술 작품을 자료로 활용 시 그림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종류로는 학생들은 최근의 작품들 보다는 과거 장면들을 담은

작품이 흥미로울 것이며 하나의 장면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어휘설명이나 상황설명이 정확한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예를 들면 김홍도의 「씨름」, 「타작」, 이중섭의 「황소」 같이 뚜렷한 이미지는 초·중급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이미지들과 색이 풍부한 그림들은 중·고급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보다 많은 이야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조선시대 풍속화와 같은 시대의 생활상을 담은 미술작품은 동남아시아권의 학생들에게는 자국의 비슷한 환경을 볼 수 있어 빠르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학습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시대와 이유는 ‘조선시대’가 한국인 교사가 배운 교과과정 내에서 잘 알고 있는 미술품이고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초급부터 전통미술 작품 제시에 대한 견해는 초급에는 형용사나 색에 대한 수업이 많아서 그림과 문법이 맞는다면 한 과의 활용과 정리단계에서 10~15분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미술 작품 활용의 어려움점으로는 어휘와 정리단계에서 사용이 좋겠으나 교사의 미술교육 역량의 문제로 미술작품 선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4) 김희수 선생님 인터뷰

한양대학교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한국어 수업을 그룹스터디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자료는 사진보다는 유용한 상황에 맞는 일러스트그림을 이용하고 있다. 일러스트자료는 해당 어휘의 이미지가 간결하고 쉽게 그려져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어 초급 학습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전통미술 작품을 자료로 사용을 해본적은 없으나 미술작품을 참고하여 수업한다면 사진이 없던 시대의 작품을 통해 과거이미지와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의복을 설명할 때 신분에 따라 다른 의상들을 입은 옛 그림이 자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견해이다. 전통미술 작품

자료의 종류와 장르로는 한쪽에 편중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와 장르로 구성하고 시간 배분은 전체수업의 2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학습자들이 언어를 배우는 목적에 적합하다고 느낄 것이라 하였다. 전통미술 작품 자료 제시는 기초수업부터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초급을 위한 수업에 미술자료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다.

3. 인터뷰 조사 분석

4명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각각 외국인 근로자, 결혼여성 이주민, 학문 목적의 대학교 입학 전후의 학생들이 학습자이고 교육 장소는 각각 문화센터, 일대일 방문, 대학교, 그룹 스터디로 다양한 대상의 목적과 학습시간이 주어지는 한국어 교사를 인터뷰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형태와 필요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어교사의 의견을 통해 알 수 있었다.

1) 이미지자료의 사용여부 (질문지 4, 5.)

학습 시 이미지자료의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고 수업의 형태와 장소에 따라 사용되는 이미지 매체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기초부터 초급과 중급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전통미술 작품을 자료로 어휘와 문법시간에 사용해 본 경험은 모두 없었다. 교사 인터뷰를 통해 전통미술 작품을 활용해야하는 필요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업시간이 짧아 교재의 사진과 그림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휴무일을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언어소통을 하고자 한국어를 배운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한국어교육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교재의 이미지

자료로만 수업이 진행되며 교사도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수업 시간의 부족은 더욱 교재의 다양한 이미지자료의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수업시간 외에 다른 한국어 학습의 여유가 없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을 위해 다양하게 한국을 알 수 있는 이미지자료를 교재를 통해 학습해야 한다. 이때에 전통미술 작품 자료가 교재에 삽입되어 있다면 한국어 학습시간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미지자료로 접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결혼 여성 이주민은 학습시간은 짧아도 일대일 방식이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이미지를 학습자에 맞추어 보여줄 수 있었다. 소수의 교육 형태나 일대일의 교육방식에서 스마트폰의 활용은 기대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짧은 교육 시간이어도 학습자의 이해도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이미지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고 동영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 활용의 폭이 크다. 스마트폰으로 이미지자료를 찾을 때에도 전통미술 작품 자료를 찾아 수업에 활용한다면 한국의 미에 관심이 많은 결혼여성 이주민자들의 학습 효과가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세 번째, 학교에서 수업하는 학문목적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깊이 있는 수업이 가능하여 사진과 그림 외에도 드라마와 영화 같은 동영상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간과 자료의 풍부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통미술 작품의 활용은 생소하고 교사의 개인적인 자료수집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이나 중급과정의 학생들에게 전통미술 작품의 자료제시가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며 문화편으로 묶어두어 훌륭한 이미지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손실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2) 전통미술 작품 자료 활용여부 (질문지 5.)

언어교육에 있어 전통미술 작품 활용에 대해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교육시간이 짧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교재의 진도를 나가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결혼여성 이민자 대상 일대일 교육에서는 교육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교육의 형태가 학습자에게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일대일 방문지도 이므로 문화에 관심이 많은 결혼여성 이주민에게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학습시간이 많은 학문목적의 대학생들은 어휘, 활용과 정리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이야기하며 진행할 수 있고 효과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3) 자료 채택 시 주의사항과 문제점 (질문지 6.)

전통미술 자료 채택 시 주의사항과 문제점으로는 교사가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므로 사전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너무 많은 자료는 학습시간이 짧은 학습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전통미술 작품이라는 자료가 주는 심적 부담이 한국어 교사들에게도 몇몇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이나 대학의 한국어학과 수업에서 교사들의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어 교재의 풍부한 자료보충이 이어져야 교사들의 자신감 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또, 전통미술 작품 하나에만 치중하지 말고 일부분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자료도 보여주어야 학생들의 선호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각 나라에도 비슷한 용도를 가진 물건이나 풍습을 찾아 자료로 활용하면 이해도 빠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말하기와 듣기 수업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통미술 작품의 장르에서는 회화, 공예품, 건축, 사진 등 전통문화를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보여주

어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의 건축물이 그려진 그림을 이미지자료로 활용했다면 남아있는 건축물의 실제 사진을 함께 보여주면 생동감 있는 수업으로 이어져 효과가 있을 것이며 회화작품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공예품들과 실생활 용품들도 다양한 이미지자료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볼 때, 전통미술 회화작품의 필요성은 한국 미술품 중에서도 시각적으로 남아있는 형태의 공예품이나 건축물이 사진이나 실물자료로 활용 가능하나 물건의 사용법, 풍습이나 생활상을 나타내는 회화작품은 대체 불가능한 귀중한 자료일 것이다. 예를 들면 신윤복의 「단오풍정」을 보면 우리나라 명절을 설명하면서 여인들이 단오절에 행하는 풍습을 작품에서 이미지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한 작품을 통해 전통문화, 생활문화, 정신문화를 아우르는 문화수업이 될 것이며 어휘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4) 교사들이 선호하는 미술자료 (질문지 7.)

인터뷰한 한국인 교사 4명 모두 특정 선호하는 작가와 작품을 묻는 질문에서 김홍도의 작품들을 이야기하였다. 조선시대 생활상을 설명하기 좋은 이미지로 시각화하였기 때문에 어휘, 문법에서의 동사표현, 형용사 등 언어편 학습 시에도 훌륭한 이미지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인터뷰한 교사 4명이 모두 동일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 교사가 받은 미술교육의 지식이 단편적이고 획일적이라는 견해이다. 이것은 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현직 교사의 재교육을 통해 문화교육의 보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재의 풍부하고 다양한 이미지 수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이다.

5) 교사들의 의견 (질문지 8.)

교사들은 전통미술 작품에 대해 수업시간이 충분하고 미술자료에 대한 설명에 부담이 없다면 자료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단, 전적으로 미술작품에 의지하기보다는 다양한 매체활용이 좋다는 견해이다. 실제로 교재의 그림이나 사진 외에 필요한 이미지자료는 학습자 대상이나 학습시간에 따라 교사들이 탄력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다. 또, 기초단계에서도 활용 가능한 이유로 한국, 한국사람, 한국문화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미술 작품 자료를 보여주는 어휘·문법 수업은 흥미와 관심을 끌어 올려 학습효과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사에 따라 어휘와 문법단계에서 또는 활용단계나 정리단계에서 사용하고 싶다는 견해들이 있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이 전통미술 작품을 자료로 언어편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편 교육에서도 교재에 일러스트그림이나 사진으로만 되어 있어 전통미술 작품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한국문화 교육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다.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한국어 교실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교육의 기준이 되는 것은 교재일 것이다. 시간에 쫓기는 수업이든 여유로운 토론 시간이 주어지는 수업이든 수업의 기준이 되는 교재에서 자료제시의 방향을 좀 더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옮겨 실어 준다면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미술 작품을 활용하는 학습지도안의 필요성을 가지고 언어편 교육에서 수업할 학습지도안을 제작하여 본 논문의 목표인 초·중·고급을 위한 전통미술 작품을 활용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를 완성시키려 한다.

IV 전통미술 작품을 활용한 교수학습 지도안 설계

1. 초급·중급·고급 단계별 전통미술 작품 제시안

1) 초급 - 었

과	문법유형(선어말어미)		
학습목표	‘-었’ 표현을 배워서 상황이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문형	-었		
단계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시간
도입	<p>T: 이것은 옛날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단오 풍정」이라는 그림이에요. (간단히 작품에 대해 설명)</p> <p>T: 그림에서 한국 옛날 여자들은 단오날에 무엇을 하고 놀았나요? (이미지 상황카드 인지)</p> <p>S: 여자는 그네를 타요.</p> <p>T: 여자는 그네를 탔어요.</p> <p>S: 옛날 여자는 머리가 길어요.</p> <p>T: 옛날 여자는 머리가 길었어요.</p> <p>T: 미미씨는 어제 무엇을 해요?</p> <p>S: 공부를 해요.</p> <p>T: 어제 공부를 해요. 어제 공부를 했어요.</p> <p>T: 수지 씨, 고등학교 때 키가 커요? 작아요?</p> <p>S: 키가 작아요.</p> <p>T: 키가 작아요. 수지 씨는 고등학교 때 키가 작았어요.</p>	<p>이미지카드 「단오 풍정」</p> <p>단오: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음력 5월 5일로 그네뛰기·씨름 등을 함.</p> <p>단양(端陽). 단옷날. 수릿날. 중오절(重午節).</p> 	5분
제시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		10분

	<p>어) 과거에 발생한 상황이나 사건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부차적으로 과거의 상황이나 사건이 이미 완료됨을 나타내거나, 과거의 상황이나 사건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p>	<p>문자카드 V/A - 었</p>	
연습	<p><형태연습> 선생님과 대화하며 문장 만들기 연습 기계적연습: T: 호영 씨,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S: 저는 친구와 같이 쇼핑을 했어요. T: 줄리아 씨, 여름 방학에 어디에 갔어요? S: 남자 친구와 같이 제주도에 갔어요. T: 현우 씨, 어제 본 영화가 어땠어요? S: 영화가 너무 무서웠어요. T: 이 집이 김 선생님 집이에요? S: 네, 20년 전부터 여기 살았어요.</p>		15분
생성/활용	<p>T: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었는지 이야기 해봐요. S: 어제 고향 친구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기뻐했어요. 우리들은 한국음식을 먹었어요. 또 만나기로 약속 했어요.</p>	<p>일기쓰기/ 발표</p>	10분
마무리/정리	<p>T: 오늘 우리가 본 조선시대 신윤복의 그림은 어땠나요? 오늘 배운 문법형태로 말해보세요. S: 재미있었어요. S: 한복이 예뻐요. <과제제시> 예: 다음시간에 오늘 배운 “-었”로 간단한 일기를 써 오세요.</p>		5분



① 필요성: 현행 국립국어원에서 출간하는 결혼여성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9과 「공원에 가서 산책 했어요」에서 ‘-있’을 통해 문법수업인 ‘과거 표현’을 공부한다. 과거표현인 만큼 우리의 전통풍속과 과거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난 조선시대 풍속화를 그린 이미지자료는 과거표현공부와 어휘의 뜻을 이해하는데 학습효과를 더 한다.

② 활용방안: 도입단계 뿐만 아니라 이미지자료로써 활용단계에서도 재사용이 가능하며 그림 안에 내포하는 이야기가 많아 학습자들이 과거표현을 많이 만들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옛날 여자들은 머리를 올렸어요.’, ‘여자들은 머리를 땡아서 올렸어요.’, ‘옛날에는 한복을 입었어요.’ 등 회화작품에 나타나는 여러 상황들을 과거표현을 익히면서 학습자가 관찰하고 언어로 표현해 볼 수 있다.

③ 기대효과: 사진기도 없던 과거의 생활풍속을 알 수 있는 길은 미술작품으로 남아있는 이미지들이다. 확실한 시각적 이미지인 전통미술 작품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생활문화와 사회문화를 외국인 학습자들이 말하며 과거표현을 익히면서 학습에 활기를 더 할 수 있다. 단순히 사진을 통해 한복이나 장신구의 이미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단오절 풍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면서 그림속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문법표현 ‘-있’에 적용하여 도입부터 활용단계까지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초급의 과거 표현과 옛 선조들의 생활상을 말하는 수업은 과거 형태의 패턴을 익히기에도 적절할 것이다.

2) 중급 - 면서

과	
학습목표	‘-(으)면서’ 표현을 배워서 ‘동시동작’ 표현을 할 수 있다.
문형	V-(으)면서

단계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시간								
도입	<p>T: 이 그림은 김홍도가 그린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 옛 그림 「타작」 이에요. 농민들과 양반이 그려진 그림 이에요.(간단히 작품에 대해 설명)</p> <p>T; 여기는 어디인가요? (이미지 상황카드 인지)</p> <p>T: 모자(갓)를 쓰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나요?</p> <p>S: 담배를 피요.</p> <p>T: 모자(갓)를 쓰고 있는 사람은 또 무엇을 하나요?</p> <p>S: 누워있어요.</p> <p>T: 갓을 쓰고 있는 사람은 담배를 피면서 누워있어요.</p> <p>누워있으면서 담배를 피요.</p> <p>T; 한가지 아니예요. 두가지예요.</p> <p>T; 일 하는 사람은 무엇 무엇을 하고 있나요?</p> <p>S: 웃으면서 일해요.</p> <p>T; 웃으면서 일해요. 일하면서 웃어요.</p>	 <p>이미지카드</p> <p>「타작」: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낱알을 거두는 일.</p>	5분								
제시	<p>주어동일 . 시제동일</p> <table border="1" data-bbox="434 1187 1091 1509"> <tr> <td data-bbox="434 1187 778 1348">V에 받침 O → 으면서</td> <td data-bbox="778 1187 1091 1348"> 웃다 (웃으면서) 걷다 (걸으면서) 읽다 (읽으면서) 먹다 (먹으면서) </td> </tr> <tr> <td data-bbox="434 1348 778 1509">V에 받침 X → 면서</td> <td data-bbox="778 1348 1091 1509"> 가다 (가면서) 오다 (오면서) 하다 (하면서) 마시다 (마시면서) </td> </tr> </table> <p>예외) V에 받침O → 만들다(만들면서), 불다(불면서)</p> <p>예시)</p> <p>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봐요.)</p> <p>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들으면서</p>	V에 받침 O → 으면서	웃다 (웃으면서) 걷다 (걸으면서) 읽다 (읽으면서) 먹다 (먹으면서)	V에 받침 X → 면서	가다 (가면서) 오다 (오면서) 하다 (하면서) 마시다 (마시면서)	<p>문법카드</p> <p>V-(으)면서</p> <p>글 씨 카드 예)</p> <table border="1" data-bbox="1129 1361 1283 1442"> <tr> <td>밥을</td> <td>먹다.</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1129 1451 1283 1532"> <tr> <td>신문을 보</td> <td>다.</td> </tr> </table> <p>그림 카드 예)</p> 	밥을	먹다.	신문을 보	다.	10분
V에 받침 O → 으면서	웃다 (웃으면서) 걷다 (걸으면서) 읽다 (읽으면서) 먹다 (먹으면서)										
V에 받침 X → 면서	가다 (가면서) 오다 (오면서) 하다 (하면서) 마시다 (마시면서)										
밥을	먹다.										
신문을 보	다.										

	운전을 해요.) 이야기 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해요.)		
연습	<형태연습> 제시한 카드를 이용하여 문장 만들기 연습 기계적연습: 글씨카드를 두 장씩 고르게 하여 동시동작 형태로 말하기 반복.	글씨카드	15분
생성/활용	게임: 카드를 깔아놓고 2장 잡아서 빨리 문장 만들기/ 액션을 취하면 학생들이 문장 만들어 맞추기 그림감상: 김홍도의 「타작」을 보며 문장 만들기	글씨카드/이미지카드	15분
마무리/정리	T: 오늘 공부 끝나고 학생들 ~하면서 ~할 거예요? S: 커피를 마시면서 집에 가요. T: 커피를 마시면서 집에 갈 거예요. (수정하여 지도) <과제제시> 예: 다음시간에 오늘 배운 “ V-(으)면서 ”로 세 가지 문장을 만들어 봐요!		10분

① 필요성: 국립국어원에서 출간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24과 「결혼 이민자 가족 한마당을 한테요」에서 ‘-면서’를 통해 문법수업인 ‘동시동작’을 공부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풍속화는 당시 생활상을 그린 작품으로 동적인 순간을 담아 마치 움직이는 영화의 한 장면을 그린 듯한 이미지들이다. 따라서 ‘동시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 학습의 이미지자료로 훌륭하다.

② 활용방안: 전통미술 작품 자료는 도입단계 뿐만 아니라 생성/활용단계에서도 재사용이 가능하며 그림 안에 내포하는 이야기가 많아 학습자들이 동


시동작을 많이 만들어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사람마다 감상의 포인트가 다른 것처럼 학습자들이 미술작품을 언어교육의 이미지 자료로 활용했을 때 각자가 보게 되는 관점에서 풍부한 ‘동시동작’ 표현들을 만드는 연습이 될 것이다. 이때 교사는 문법적인 수정만을 해야 하며 그림에서 느낀 추상적인 감정을 제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누워있는 남자는 **졸면서** 담배를 피워요.’, ‘일하는 남자는 **웃으면서** 일해요.’, ‘두 사람은 **떠들면서** 일해요.’ 생성/활용단계에서 학습자들이 그림을 감상하며 깊이 있게 말하기와 듣기 연습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기대효과: 문법표현과 더불어 생성/활용단계에서 미술 감상의 시간을 나누는 것은 미술교육과의 융합교육으로 학습자가 앞으로의 한국생활이나 문화생활에 있어 윤택하여 짐을 말한다. 미술작품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작품에서 느끼는 개인의 감상을 존중하므로 한국어가 중급자인 외국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만큼의 어휘와 문법표현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느낌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갓을 쓴 사람은 **놀면서** 담배를 태워요.’, ‘일하는 사람들은 옛날이야기를 **하면서** 웃어요.’, ‘갓을 쓴 사람은 **감시하면서** 놀아요.’처럼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이 추상적이고 확장 가능한 감정표현 까지도 한국 미술 작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또, 비슷한 기후의 농업국가의 학습자들은 그림의 이미지가 친근하여 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진기가 없던 시대에 과거의 현장을 생생히 표현해내는 미술작품의 기록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3) 고급 - 거니와

과	문법유형 (연결어미)
학습목표	‘-거니와’ 표현을 배워서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뒤의 사실을 덧붙임하여 나타낼 수 있다.
문형	-거니와

단계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시간		
도입	<p>T; 이 그림은 신윤복이 그린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 「미인도」 라는 그림 이에요. 옛날 조선시대는 왕이나 신분이 높은 선비들만 인물화로 그렸어요. 그런데 신윤복의 미인도의 여인은 어린나이의 기녀예요.(간단히 작품에 대해 설명)</p> <p>T; 그림의 여인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두 가지 말해보세요. (이미지 상황카드 인지)</p> <p>S: 아름답고 화려해요</p> <p>T: 네. 미인도의 여인은 아름답거니와 화려해요.</p> <p>S; 미인도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글씨도 있어요.</p> <p>T; 미인도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니와 글씨도 있어요.</p> <p>T; 미미 씨, 지난 방학에 제주도에 다녀왔지요? 제주도는 어땠어요?</p> <p>S;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p> <p>T; 그래요. 경치가 정말 아름답지요? 그리고 사람들도 아주 친절해요.</p> <p>S; 아, 정말 그랬어요.</p> <p>T; 제주도는 경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제주도는 경치도 아름답거니와 사람들도 친절해요. ‘-거니와’는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해 뒤의 사실을 더할 때 사용해요.</p>	<p>이미지카드 기녀: 「춤·노래·의술·바느질 따위를 배워 익히던 관비(官婢)의 총칭. 여기(女妓). 연화(煙花) 기생(妓女). 미인도」</p> 	5분		
제시	<p>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거니와’를 쓴다.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p> <table border="1" data-bbox="432 1688 1090 1792"> <tr> <td data-bbox="432 1688 783 1792">받침 0 → 거니와</td> <td data-bbox="783 1688 1090 1792">먹거니와, 읽거니와, 춤거니와, 돕거니와, 길거니와, 만</td> </tr> </table>	받침 0 → 거니와	먹거니와, 읽거니와, 춤거니와, 돕거니와, 길거니와, 만	문법카드 -거니와	10분
받침 0 → 거니와	먹거니와, 읽거니와, 춤거니와, 돕거니와, 길거니와, 만				

	들거니와		
받침 X → 거니와	가거니와, 보거니와, 사거니와, 일하거니와		
<p>‘이다, 아니다’는 ‘-거니와’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이’를 생략하여 ‘명사+-거니와’라고 쓴다.</p> <p>예 학생 + -이거니와 → 학생이거니와 친구 + -이거니와 → 친구이거니와/친구거니와</p> <p>① 보조사 ‘도’와 함께 쓰이거나, 부사 ‘또한’이나 ‘물론’과 함께 쓰일 수 있다. ‘-거니와’와 결합하는 명사나 ‘-거니와’에 후행하는 명사에 모두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면 어색할 수 있다.</p> <p>예) 이 식당은 가격이 싸거니와 음식 맛이 좋다. (?) 이 식당은 가격도 싸거니와 음식 맛도 좋다. (o) 이 식당은 가격도 싸거니와 또한 음식 맛도 좋다. (o) 이 식당은 가격도 싸거니와 물론 음식 맛도 좋다. (o) 철수는 수학을 잘하거니와 영어를 잘합니다. (?) 철수는 수학도 잘하거니와 영어도 잘합니다. (?)</p> <p>② 비격식적인 구어보다 토론, 뉴스 등의 격식적인 문어에서 주로 사용된다.</p> <p>예) 이 가방은 디자인도 예쁘거니와 가격도 싸. (?) 이 가방은 디자인도 아름답거니와 가격도 저렴</p>			

	<p>하다. (o) 이 가방은 디자인도 아름답거니와 가격도 저렴합니다. (o)</p> <p>‘-거니와’는 격식적인 문어의 느낌이 강해서 뒤 절의 어미가 ‘-는다’ 혹은 ‘-습니다’ 형태와의 결합이 우세하며 함께 사용되는 어휘도 격식적인 문어에 사용되는 어휘와의 결합이 우세하다. 비격식적인 종결어미와 결합한 문장은 완전히 비문법적이지는 않지만 부자연스럽다.</p> <p>③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거나, 주제 혹은 화제가 같아야 한다. 예) (저는) 몸도 아프거니와 (저는)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o) (수지는) 하는 일마다 열심히 하거니와 (수지에게) 운도 따라서 늘 성공합니다. (o) 저는 수학을 잘하거니와 제 동생은 영어를 잘합니다. (x)</p> <p>④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할 수 있다. 예)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니와 유일한 동생마저 죽었다. (o) 이제 술도 끊겠거니와 담배도 피우지 않겠습니다. (o)</p> <p>⑤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 의문문이 올 수 없다. 예)</p>	
--	--	--

	<p>노래도 부르거니와 춤도 추세요. (x)</p> <p>회의 후에 식사도 같이 하거니와 차도 한 잔 마 십시다. (x)</p> <p>오늘 경주에 가서 박물관도 가거니와 왕의 무덤 에도 갈 거예요? (x)</p>		
연습	<p><형태연습> 제시한 카드를 이용하여 문장 만들 기 연습</p> <p>기계적연습: 교실에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 이름 이 적힌 카드를 순서대로 뽑아 - 거니와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 보기.</p> <p>예) 선생님은 한국어도 잘하거니와 영어도 잘해 요.</p> <p>미미는 아름답거니와 성격도 좋아요.</p>	<p>이름카드 예)</p> <p><input type="text" value="선생님"/></p> <p><input type="text" value="미미"/></p>	15분
생성/활 용	<p>게임: 동사와 형용사카드를 깔아놓고 빨리 잡아 서 문장 만들기 (마지막으로 문장 만든 사람이 벌칙/틀린 문장은 다시 만들기)</p>	<p>글씨카드 예)</p> <p><input type="text" value="예쁘다"/></p> <p><input type="text" value="착하다"/></p> <p><input type="text" value="사랑하다"/></p> <p><input type="text" value="존경하다"/></p>	10분
마무리/ 정리	<p>T: 우리가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미술작품들을 감 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오늘 배운 - 거니 와를 사용해서 말해보세요.</p> <p>S: 한국어를 알게 되거니와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요.</p> <p>S: 옛날 한국 사람들의 생활을 알게 되거니와 친 하게도 느껴져요.</p> <p><과제제시> 예: 다음시간에 오늘 배운 “-거니 와”로 세 가지 문장을 만들어 봐요!</p>		10분

- ① 필요성: 국립국어원에서 출간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고급 17과 「국제사회」에서 ‘-거니와’를 통해 문법수업인 ‘덧붙임’을 공부한다. 이 과의 문법과 어휘수업에서 전통미술 작품을 자료로 활용한다면 이해하기 힘든 한국 전통 어휘들을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하여 학습효과를 높인다.
- ② 활용방안: 신윤복의 「기녀」는 작가가 표현하는 당시의 어린 여인의 직업과 관련된 ‘기녀’라는 어휘를 설명할 때 이미지를 전달하여 어떠한 사진보다 더 훌륭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춤 · 노래 · 의술 · 바느질 등을 배워 익히던 관비로써의 내적 이미지를 인물 안에 표현하는 것은 미술작품이 사진보다도 더 가능할 것이다. 중급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술작품은 감상이 확실화된 것이 아니므로 활용과 생성단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다.
- ③ 기대효과: 문화편 교육에서 ‘한복’을 배우도 옛 의복으로 배우 뿐 다양한 직업, 성별, 직책에 따른 한복의 종류와 머리모양 등을 배우기 힘들다. 한국어에 존대어가 있어 외국학습자들이 이해하고 높임말을 써야하는 언어문화를 배우듯이 생활상을 담은 회화작품을 통해 신분과 성별, 직업을 나타내는 다양한 의복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것이다. 또, 고급단계에서 한국 문학작품을 읽을 때 초급 때부터 반복되고 누적된 많은 한국 미술 이미지들이 한국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어편에서 매 시간 미술작품을 통해 종합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은 한국어 학습의 고급과정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2. 초급·중급·고급 단계의 공통점과 차이점

초급 · 중급 · 고급의 수업은 국립국어원이 정하는 문법의 단계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수준별로 다양한 문법과 어휘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전통미술

작품 자료사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여 효율적인 자료로써 활용 가치를 알아본다.

1) 공통점으로는 첫 번째, 도입 단계에서부터 전통미술 작품을 제시하고 문법수업에 활용한다. 초급단계에서 부터 고급단계까지 이미지자료를 활용하여 도입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그 과에 해당하는 문법을 설명 할 전통미술 이미지 자료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가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 언어를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자료이므로 언어의 수준에 따라 도입 단계에서 활용을 피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생성·활용단계에서도 이미지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한 장의 그림 속에 하나의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생성·활용단계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으며 초·중·고급 어느 수준에서든 단계에 맞는 문법을 적용하여 표현 가능하다.

세 번째, 한 장의 전통미술 자료가 초급·중급·고급에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과의 문법·어휘의 자료로도 재사용 가능하다. 하나의 미술작품에는 일러스트 그림 자료나 단어카드 같이 하나의 의미 전달 만을 위한 그림이 아니므로 많은 문법을 설명할 요소들이 있고 어휘들이 그려져 있다.

2) 수준별 자료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초급에서는 대체로 단순한 그림을 보여주어 외국인 학습자들이 그날의 문법과 어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급은 아직 표현이 미숙하고 그날 배운 문법과 어휘를 완전히 습득할 수 있는 반복이 중요하므로 복잡한 이미지 보다는 되도록 단순한 이미지 제시가 도움이 된다. 고급단계로 갈수록 학습자는 다양한 어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이미지가 많더라도 무리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생성·활용 할 수 있다.

3)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면, 기존의 초·중·고급의 학습 교재에서 전통미술 작품을 어느 단계, 어느 문법 과정에서나 어렵지 않게 학습 자료로 활용해도 무방하며 같은 작품을 반복하여 사용하여도 좋다. 작품 안에 그려진 많은 이미지들과 작가가 표현하려는 세계는 한국어를 배우는 성인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훌륭한 이미지자료로 보여 질 것이다. 따라서 활용 면에서 한 장의 작품을 반복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교사가 미술 작품 자료 조사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미술작품이 주는 또 하나의 기대효과는 초급부터 전통미술 작품에 노출되어 온 외국인 학습자들은 고급단계에서 접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의 문학작품을 쉽게 이미지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교재의 전통 미술 작품 자료에 대한 보안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학습 초기부터 훌륭한 전통미술 작품들을 활용하는 수업이다. 전통미술 작품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자료 제시는 한국어 교육은 물론 학습자에게 한국을 알리고 미적 감동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훌륭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이 있고 감동시킬 시각적 자료가 있다면 한국어 교육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옛 서민들과 시대상이 반영된 작품을 선정하여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는 언어자원으로 정하였다. 주제가 간략히 표현되면서 어휘와 문법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명한 이미지를 찾아 초·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언어 교육 이미지자료로 활용했다.

처음부터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했다. 현재, 전통미술 작품의 제시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 이유는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다루는 교재에서 문화교육의 비중과 시간, 이미지자료들의 구성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교육의 독립된 구성과 불규칙하고 적은 시간분배, 사진과 일러스트 그림으로만 삽입된 이미지자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화의 영역을 언어편으로 끌어들이 전통미술 작품을 시각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한국어교육의 부족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이미지자료로 활용 가능한 전통미술 작품들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여 국립국어원의 어휘·문법 목록을 참조하여 초급·중급·고급에 맞는 새로운 학습지도안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여성 이주민, 대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한국어 교사들을 통해 전통미술 작품 자료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국의 미, 역사, 사회, 생활문화 등이 나타나는 전통미술 작품을 활용하는 수업에 긍정적인 뜻을 표했다. 교사들은 초급부터도 수업자료로 사용 가능하며 대상자나 어휘·문법에 따라 기초단계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했다. 또, 학습시간과 미술자료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소개되어 있다면 기존 이미지자료들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싶어 했다.

본인은 이러한 인터뷰의 결과에 확신을 가지고 미술작품의 기준을 교사들이 추천하는 조선시대 생활문화를 다룬 ‘풍속화’를 중심으로 학습계획안을 작성해 보았으며 도입부에서 부터 우리문화가 담긴 미술작품을 자료로 제시하여 학습의 집중력과 흥미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특히,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초급 외국인 학습자들의 동기부여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한국의 옛 풍속이나 생활상을 그린 그림에서 동남아계통의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고향 이미지와 비슷한 면을 볼 수도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습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미술자료가 주는 또 하나의 가치는 사진이 없던 시대의 건축, 의상, 생활상 등을 보여주는 회화작품은 유일하며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예술작품을 통해 느끼는 감정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은 미술교육과의 융합교육으로써의 역할도 하게 된다. 문자를 익히는데 그림이라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문식성 교육을 위한 매체교육의 측면과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융합으로 일거양득의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은 도입부에서 선명한 이미지의 회화작품을 주제와 연관된 어휘·문

법을 설명할 때 제시한다. 학습자가 교사의 질문에 따라 그림을 보고 상황을 말로 풀어가며 그날의 어휘와 문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는 생성·활용과 정리단계에서도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앞에서 주장한 한국어교육에 효과적이다. 아울러 학습자가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혀 한국에 대한 적응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또, 미술작품 자료 제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초급 학습자들에게 수업의 흥미를 고조시키는 일이며 미술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가치를 더한다.

또한 한국미술의 영역을 넘어 한국음악에서 전통악기나 판소리, 민요를 들려주고 언어편 활용단계나 말하기 듣기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도 다양한 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교사들은 인터뷰에서 건축물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는데, 잘 알려진 사극 드라마나 영화 같은 동영상 자료를 이용하면 언어편의 어휘단계 설명부터 활용단계에서도 훌륭한 이미지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또 하나의 과제는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부터 이러한 전통미술 작품을 활용하여 언어습득은 물론 문화교육을 병행할 수 있듯이 음악이나 건축과 같은 우리의 전통예술을 문화편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언어편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를 통한 수업 연구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어 능력과 문화·예술적 문식력을 향상시켜 한국 고유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며 한국인과 문화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고급단계 이후가 아닌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부터 쉽고 자주 접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려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앞에서 초급·중급·고급의 이미지자료 사용의 혼용이 가능하고 수업에서 도입부부터 활용단계까지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며 다른 과의 문법수업에서도 한 이미지를 반복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활용 면에서 경제적 장점이 크다고 하겠다. 이후, 제시한 학습지도안을 바탕으로 더 많은 우리의 전통미술 작품들을 이미지 자료로 활용하는 교재

의 개발과 실제수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 전통미술 작품을 활용한 현장 수업에서 부담 없이 미술작품을 이미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교육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통미술 작품 자료를 어휘와 문법수업 시간에 도입하고자 적합한 미술작품을 찾아 수업계획안을 초급·중급·고급 별로 만들어보고 한국어 교사들의 조언을 참고로 논문을 완성하지만 전통미술 작품을 자료로 활용하는 수업을 실제 외국인 학습자에게 지도하여 실행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현장 수업이 중요하나 지도교사의 짜여진 수업과정과 교재에 대한 충실성으로 인해 새로운 연구에 대한 교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아무리 잘 계획된 학습지도안도 실제 수업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고 교육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수업을 통한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야 효과적인 학습지도안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장 수업에 대한 아쉬움을 다음 연구로 보강하여 생생한 학습자의 반응과 문제점들을 수정한 효과적인 교수법을 연구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이미혜 외(201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 문화원
- 강현화 외(2015),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 문화원
-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국어교육연구소·언어교육원 공편(2014),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1.2.」 -아카넷
- 박혜주(2005), 「해외 한국학 문학교재 연구」, 한국문학번역원
- 김희영/신지원(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 전통 미술 교육에 관한 연구」 - 박물관 중심으로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3,4」, 국립국어원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1,2」, 국립국어원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고급5,6」, 국립국어원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1,2 강사지침서」, 국립국어원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3,4 강사지침서」, 국립국어원
-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문화교육방안」, 한글교육
- 박영순(2006),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림출판사
- 박혜주(2005), 「해외 한국학 문학교재 연구」, 한국문학번역원, 32쪽.

<학위논문>

- 김연희(2009), 「시와 수필을 활용한 초·중급 한국어연구」, 이화여자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예원(2006), 「미술-영어 통합지도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숙(2014),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문학 기반통합 교육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안바리(2015), 「아동문학을 활용한 중도입국 아동대상 한국어 교육 실행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전공

안유미(2003), 「초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윤옥경(2016), 「외국인 교수를 위한 한국어 · 한국문화교육 요구 분석 연구」, 박사학위논문

옥현진(2008), 「다중모드 문식성」

장희경(2015), 「전통문화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재구성 방안 연구」

신남미(2014), 「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원용 지침서 개발 방안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재원(200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연구」

나정선(2008), 「외국인을 한 문학 교육 방법」, 단국 학원 , 박사학 논문

신지원(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 전통 미술 교육에 관한 연구」

김남주(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원광대 교육대학원

조항록(2001),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화」, 연세대 언어교육연구원 제1차 한국어 교육 학술대회 발표논문

<학술지>

강승혜 「한국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요구분석」, 연세대학교

Brown(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Jersey, Prentice Hall.

<인터넷 사이트>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kr

국회 전자 도서관 www.dlibrary.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구글 위키백과

<교수학습지도안의 참고이미지>

1. 단원 김홍도 「풍속도첩」 중 「벼타작」, 조선후기
1. 신윤복 「단오풍정」 중 일부 조선중기
2. 신윤복 「미인도」, 조선후기

<부록1>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중급 24과

24. '결혼 이민자 가족 한마당'을 한대요



대화

산다라: 자넷 씨, 그거 알아요?
 다음 주 일요일에 '결혼 이민자 가족 한마당'을 한대요.
 자넷: 그게 뭐예요?
 산다라: 한국에 시집 온 외국인 주부들 잔치예요.
 장터도 열리고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열린대요.
 자넷: 무슨 행사를 해요?
 산다라: 노래자랑도 하고, 친정어머니 댁기 행사도 하고 송편 만들기 대회도 한대요.
 자넷: 어디에서 해요?
 산다라: 한국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대요.
 자넷: 그래요? 산다라 씨는 노래를 잘하니까 한 번 나가보세요.

친지 시집 오다 장터 행사 노래자랑 친정어머니 댁기 대회

어휘

전통 문화

놀이 음악 음식 악기 춤

※ 여러분 고향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에 대해 써 봅시다.

	놀이	의상	음악	음식	악기	춤
한 국	웃놀이	한복	아리랑	떡국	가야금	탈춤
베 트 남						
필 리 핀						



<부록2> 김홍도, 서당



<부록3>신사임당, 「초충도」



Abstract

A method of contemplating traditional arts for teaching Korean.

- For students learn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Hwang, mi hye

Fine Art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 ' 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e edu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for foreigners, who can learn Korean and comprehend Korean culture through the image of various traditional arts, by presenting desirable method based on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teaching Korean which was found out by analysing existing texts and interviewing teachers who have been working at various institutions. And the method aim at the fusion of the language, the culture and the education of art by enjoying the arts and discussing one's impressions and opinions.

Through the study of the existing materials of the language using traditional arts, it is found out that it is difficult for students to get a high level education which are rare. Above all there is not any text using the images of traditional arts.

The author insist that it is an opportunity for learners to understand the culture by exposing the arts to them. It is nature to have more focused lectures and enhanced sympathy by using foreign arts. Consequently it is realised that various researches and suggestions are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needs of learners, interviews were done with foreign workers, who study Korean for various reasons, women come from abroad to get married with korean men, and 4 professors teaching university students who came to Korea for diverse purposes.

Subsequently the writer have selected the images of Korean pictures for beginners and middle class learners. The criterion of the selection is the genre, which depicted the livings of ancestors, to help foreigners understand the emotion of Korean. The image materials, which the teachers could easily explain to their students and the students could easily understand, were selected based on the catalogue made by National Institution of Korean which classifies vocabulary and grammar, collected from six universities, 3 levels : low, middle and high level. Using selected arts, the guide line is made for vocabulary and grammar. The guide line has 3 levels of verb inflection : past tense (-았) for low level, gerund (V-(으)면서) for middle level, enumeration for high level.

The instructors are generally affirmative for using traditional arts in their classes, if these are available because lots of their students learn Korean out of their love to Korean culture. It bis found out that there is a necessity to apply the images of traditional arts to learning Korean after intensive interviews for the concern and knowledges of the paintings.

Since this guide line is an example, the communication skill of people learning Korean would be improved through the cultural education which should be naturally combined the education of Korean and traditional arts through more studies including this paper. The purpose of using traditional arts is that first of all it is effective to teach Korean. Secondly it could increase the communication skill and the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through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Thirdly it could interest the learners in class and Korea. Finally it could teach arts by presenting aesthetic materials. I hope that the education of Korean be prosperous by many studies of using traditional arts by teachers including this study.